

from social work, the spirituality has the tendency to be more therapeutic in areas such as psychiatry, psychology, and nursing. In the case of Buddhist social work, spirituality anticipates more in-depth applications than any other clinical theory. However, the progress is dull in reality. Even though the theoretical system of spirituality has been built in principal, there is a lack of application in fields and so in reality, feedback cannot be obtained from experiences. Here I emphasize that Buddhist social work practice based on spirituality needs to study assessment and intervention skills more and to have a more preferable target population and a theory systemic applying to the fields.

#### **Key Word**

Spirituality-perspective, Equanimity, Inter-relatedness,  
Transpersonal psychotherapy, Strengths- perspective,  
Mindfulness-based psychotherapy, Positivism

## 산사음악회의 포교효과성 연구

정해성(각정)  
중앙승가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 II. 개념적 논의와 분석틀
- III. 산사음악회의 분석
- IV. 산사음악회의 포교효과
- V. 결론

## 요약문

사회의 변화에 따라 포교에서도 다양한 문화적 수단을 활용하는 '문화포교'가 핵심이 되고 있다. 산사음악회는 음악을 포교의 수단으로 활용한 문화포교로서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 축제 등과 연계되어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산사음악회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형편이다. 이에 포교론적 관점에서 산사음악회를 고찰하였다.

우선 산사음악회의 연원, 성격, 실태, 산사음악회 참여자들의 실태 및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포교효과 분석을 위해 문화포교와 참여자들을 유형화하였다. 문화포교는 참여자들의 참여 수준과 타 프로그램과의 연계유무, 참여자들은 종교와 문화적 취향에 따라 각각 네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산사음악회의 포교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산사음악회의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산사음악회는 기존 불교신자들뿐 아니라 산사음악회에서 제공하는 음악 장르를 선호하는 일반인에게도 높은 포교효과를 얻고 있다.

일반인들은 음악회를 통해 불교문화를 이해하고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고 있으며, 기존 신자들은 불자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불교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 주제어

문화포교, 산사음악회, 포교효과, 문화적 취향

## I. 들어가는 말

70~80년대의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사회는 90년대 이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일반대중의 관심은 웰빙족, 로하스족(LOHAS)의 출현으로 이어졌고, 대다수의 사람들도 삶의 질과 가치관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과 열망은 각종 제도의 변경을 가져와 주 5일제와 주5일 수업제 등이 도입되었다. 교통 발달,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여가 지향적 사회구조의 등장도 문화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일반대중들은 늘어난 여가시간을 단순히 유흥에 소비하지 않고 보다 충실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문화를 찾고 있으며,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은 불교계에도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다. 여러 전통문화 중에서도 불교는 치열한 경쟁과 물질위주의 삶에 지친 일반대중에게 안식과 위안을 줄 수 있는 문화로 각광받고

있다.<sup>1)</sup>

이러한 변화의 요구는 당연한 현상이다.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역사 속에서 불교는 각 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 성격을 변화시키면서 한국의 전통문화이자 주요 정신문화로 자리 잡았다. 신라 시대에는 그 시대의 욕구에 따라 국가적 불교로 변화하여 진호국가(鎭護國家)의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백고강좌(百高講座) 개설, 사천왕사(四天王寺)의 건립, 팔관재회(八關齋會) 건수(虔修)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화랑도(花郎道)정신으로서 고승들이 직접 화랑도의 교도(教導)선상에 나서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거란과 몽고의 침입을 물리치지 위해 경판을 조각하는데 불교계는 공을 들였다. 현종(顯宗) 2년에 거란의 내침을 물리치기 위해 대장경을 조판하였고, 고종(高宗) 22년에는 몽고군을 물리치기 위해 15년에 걸쳐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을 완성시켰다. 이처럼 불교문화는 시대의 욕구에 맞춰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왔고, 그 과정에서 석굴암과 불국사, 팔만대장경, 직지심체요절 등 한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문화유산들은 후대에 남겼다.

이를 고려하면 최근의 시대적 흐름에 상응하여 대중문화를 포교에 적극 활용하거나 여러 불교문화를 대중화하여 일반대중에게 소개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다. 기존의 합창단 공연이나 찬불가 보급과 같은 불교음악, 탕화나 조각 등의 불교미술, 불교문학 등을 수단으로 하여 불교의 교리를 알리는 포교와 영상포교, 스포츠 포

1) 그럼에도 불교는 보수적인 성격으로 몇몇 선각적인 스님들의 대중화 작업 외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지만, 다행히 최근에는 종단 차원에서 템플스테이, 산사음악회 등 다양한 대중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 등과 같이 대중문화에 불교적 가치를 접목하는 포교는 근래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를 '문화포교'로 지칭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를 기치로 내건 포교 패러다임은 현대 포교의 핵심적 영역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불교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포교 활동을 정리하고 그 의미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현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화포교를 검토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론화하려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포교 행사 중에서 매우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 산사음악회에 주목하여 그 포교효과를 분석하였다. 음악회라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일반인들도 쉽게 참여하고 있다. 또한 사찰이라는 공간속에서 현대문명의 속성인 속도와 경쟁에 지친 일상인들에게 정신적 휴식과 여유를 제공하는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산사음악회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으며 언론이나 지자체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사음악회의 효과성을 검토함으로써 불교문화의 대중화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포교의 활성화에 일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장에서 문화포교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본 논문의 주요 관심대상인 산사음악회의 역사적 기원과 특징, 그리고 참가자들의 태도와 산사음악회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였다. 4장에서는 산사음악회의 포교효과를 3가지 측면—종교적, 문화적, 정서적—에서 살핀 후, 참가자의 유형에 따른 특징에 따라 포교 효과성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분석하였다.

## II. 개념적 논의와 분석틀

### 1. 문화포교의 개념과 유형

#### 1) 문화포교의 이해

모든 종교는 그 종교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특정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지니고 있다. 어떤 종교는 기존의 문화적·지역적 전통을 계속 유지하지만 대다수 종교는 그런 지역의 범위를 넘어 광범위한 문화와 지역을 포괄하는 모습을 지닌다. 유대교와 힌두교, 일본의 신도가 전자의 예라면, 기독교와 불교 등은 후자의 예이다. 이 종교들은 특정한 사회적·문화적 맥락과 특정한 인종적 혹은 민족적 집단의 맥락에서 등장하였지만 이를 초월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전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도 많은 이들이 해당 종교의 본거지를 넘어 타 국가로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려 하였고, 당시에는 이렇게 국가를 넘어선 포교가 포교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가를 넘어선 포교보다 이미 해당 종교가 전파된 지역 내에서 그 종교를 믿지 않고 있거나 무관심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된 지 수 천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국내 포교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8년 현재 자생종교와 외래종교 등을 합해 510여 개 이상의 교단/교파가 존재하는

다종교 국가<sup>2)</sup>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포교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이러한 인식은 기독교, 천주교 등 타 종교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포교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 자신의 교리만을 무조건적으로 전파하는 것은 대중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해진 환경에서는 타인에 대한 경계심도 커 외부환경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아 포교의 효과도 그리 크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이에 개신교를 비롯한 이웃 종교들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 일반대중들의 심리적 거부감과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보다 유연한 방법을 포교에 이용하고 있다. 개신교의 경우 1970년대부터 ‘문화선교’라는 방법으로 이를 실천하고 있다.<sup>3)</sup> 천주교도 선교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한층 강조하고 있다. 정명조 주교<sup>4)</sup>는 ‘한국주교단 대회년 특별진단’이란 기고문에서 “오늘날의 복음화를 바로 ‘문화의 복음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교회는…대중문화를 효율적으로 사목에 접목시켜 토착화된 신앙이 가능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다”<sup>5)</sup>며 대중문화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처럼 개신교와 천주교는 오래전부터 문화적 표현수단을 선교에

있어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선교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sup>6)</sup>

불교계에서도 문화포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각 사찰에서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는 산사음악회와 템플스테이가 그 예이다. 이러한 문화포교를 불교계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화한 불교문화를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화하고, 상징화하여 그 문화에 접촉해서 의미를 해석하고, 수용하고, 내면화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7)</sup>

## 2) 문화포교의 유형구분과 그 의미

불교계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문화포교 프로그램은 내용과 형식에 따라 의례형, 체험형, 불교문화행사형, 관람형, 학습형, 이벤트형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① 의례형 문화포교는 관혼상제(冠婚喪祭)와 같은 각종 통과 의례와 관련된 문화를 불교의식으로 보급함으로써 포교효과를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체험형 문화포교는 사찰에서의 일상생활과 수행 등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불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진시키는 포교활동을 말한다.

③ 불교문화행사형 문화포교는 ‘괴불제’와 같은 불교행사에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불교를 접하게 하고 이를 통해 불교에 대한

2) 문화체육관광부(2008), 『2008년 한국의 종교현황』, p. 3

3) 김문환(1995), p. 48

4) 정명조(1935년 - 2007년 6월 1일)는 대한민국의 로마 가톨릭 주교였다. 세례명은 아우구스티노. 천주교 부산교구 교구장과 천주교 군종교구 교구장을 지냈다.

5) 정명조 주교, 「한국주교단 대회년 특별진단」, 《평화신문》, 2000년 4월 23일자, 정혜성(2006)에서 재인용

6) 김승태(1994), p. 7; 강 진구(2003), p. 73

7)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2007), pp. 292-298 참고. 아래의 문화포교의 유형은 같은 책 pp. 298-305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포교활동이다.

④ 관람형 문화포교는 사찰의 각종 유형 문화재와 무형 문화행사 등을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게 함으로써 불교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포교방법이다.

⑤ 학습형 문화포교는 불교문화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실행활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포교방법이다.

⑥ 이벤트형 포교는 산사음악회, 산사영화제, 연극 공연 등과 같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즐기면서 사찰을 소개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각종 문화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포교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⑦ 문서형 포교는 사찰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적 및 출판물, 간행물들을 발간함으로써 포교활동을 수행하는 특성을 띠고 있다.

⑧ 정보문화형 포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형성된 새로운 문화인 정보문화를 포교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문화포교는 불교문화를 일반대중에게 체험 또는 관람하게 하여 관심을 유도하거나 대중문화 형식을 차용하여 불교의 교리와 문화를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식이 이용된다. 또한 문화포교는 지역축제 등과 연계되어 기획되거나 내용을 달리하는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독립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일반인들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를 고려하면, 문화포교는 일반대중의 참여수준에 따라 참

여·체험형과 관람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타 프로그램과의 연계 유무에 따라 단독 프로그램 혹은 지역축제 등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는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두 기준에 따라 다양한 문화포교 프로그램을 <표1>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1> 문화포교 프로그램 유형 구분

|              |         | 참가자의 참여수준 |     |
|--------------|---------|-----------|-----|
|              |         | 참여·체험형    | 관람형 |
| 타 프로그램과 연계여부 | 단독 프로그램 | I         | IV  |
|              | 연계 프로그램 | II        | III |

이처럼 문화포교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참여·체험-단독 프로그램(I형)”이 그 밀도/강도가 가장 높으며, “참여·체험-연계 프로그램(II형)” → “관람-연계 프로그램(III형)” → “관람-단독 프로그램(IV형)” 순으로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불교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진다. 때문에 유형에 따라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얻을 수 있는 포교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참여수준과 타 프로그램과의 연계여부에 따라 프로그램의 구성과 형식에 차이가 발생하고, 구성상의 차이로 인해 참여자에게 전달되는 불교적 가치와 삶의 방식의 밀도/강도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참여자에게 전달되는 내용의 차이는 불교문화와 교리 등의 수용정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즉 참여자의 종교와 신앙심의 정도(불교도의 경우), 문화적 취향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경험하더라도 포교 효과는 다를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예상한다.

## 2. 연구의 분석틀

문화포교를 통해 일반대중에게 전파하려는 불교문화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형성된 불교적 가치와 생활양식으로서 불자들에게 의해 공유되는 것을 뜻한다.<sup>8)</sup> 이러한 불교문화는 다른 문화와 같이 홀로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들과 접촉하여 변화한다. 문화포교는 이러한 문화간 접촉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으로 일반대중과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화포교를 통해 불교문화는 이미 독자적인 문화적 양식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과 만나 서로의 문화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각각 독자의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 두 개의 문화 사이에 발생하는 문화접변<sup>9)</sup>과 비슷한 양태를 보인다.

이론적으로 문화접변은 양방향으로 나타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문화요소가 전파된 사회에서 더욱 크게 발생한다. 포교의 경우도 어떤 개인에게 특정 신념과 이에 기초한 삶의 양식을 전파하는 경우 이므로 양방향의 관계보다는 일방향의 관계가 현실에서 보다 많이 관찰된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포교의 경우도 문화전파와 같이 한쪽을 제공자, 다른 쪽을 수용자로 칭할 수 있으며, 수용자가 새로운 문화요소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저항/도입/거절/묵살/수용 등으로 정

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문화인류학을 대표하는 클라이드 클룩혼(Clyde Kluckhohn)은 “문화란 후천적·역사적으로 형성된 외면적 및 내면적인 생활양식의 체계로서 집단 또는 특정의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Clyde Kluckhohn and W. H. Kelly, “The Concept of Culture,” R. Linton, ed., The Science of Man in the World Crisi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c.1945, p. 94)

9) 문화접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이론적 논의는 히라노 게이치로(2004)의 『국제문화론』을 참조할 것.

리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포교효과를 종교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 정서적 측면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불교문화를 접한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불교문화의 수용 여부(혹은 수용정도)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동일한 불교문화를 접했다하더라도 수용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기존 종교, 문화적 취향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종교와 문화적 취향을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생각하여 이 두 요소를 조합하여 수용자집단을 크게 네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림1〉 논문의 분석틀



본 논문에서는 1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양한 문화포교 프로그램 중에서 “단순관람-단독 프로그램”에 속하는 산사음악회를 대상으로 위에서 언급한 주요한 가설들을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가설 1: 산사음악회는 문화적 측면의 효과가 가장 클 것이다.

연구가설 2: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포교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_1: 종교적 측면의 효과는 그룹 1에서 가장 클 것이다.  
 연구가설 2\_2: 종교적 측면의 효과는 그룹 3이 그룹 4보다 클 것이다.  
 연구가설 2\_3: 문화적 측면의 효과는 그룹 3에서 가장 클 것이다.  
 연구가설 2\_4: 정서적 측면의 효과는 그룹 1에서 가장 클 것이다.

### 3. 조사방법과 조사대상의 특징

#### 1) 조사방법

제시된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해 산사음악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응답을 받았다. 설문조사는 참가자들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면접원이 준비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2008년 5월부터 11월 사이에 열린 산사음악회 중에서 5곳<sup>10)</sup>을 선정하고 50부씩을 조사하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에서 면접자와 분석자의 검토과정을 거쳐 불성실한 설문지 66부를 제외한 후 184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는 SPSS Windows 15.0을 이용하였다.

#### 2) 조사대상의 특징

분석에 이용된 참가자들의 성별/연령별/종교별 구성비와 같은 일

10) 설문조사가 진행된 산사음악회의 장소와 시기는 다음과 같다. 평택 명법사 08. 05. 12. / 부여 미암사 08. 05. 12. / 경북 인각사 08. 06. 14. / 진천 용화사 08. 05. 12 / 창원 성주사 08. 11. 01

반적 특성과 본 논문에서 주요한 변수로 이용하는 참여자의 그룹별 재구성 작업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 (1) 일반적 특징

참여자의 성별비율은 여성이 58.2%로 남성(40.8%)보다 조금 많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40.8%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50대가 20.7%, 20대 미만이 14.1% 순으로 많았다. 이 결과는 산사음악회에 가족 단위 참여자들이 많아 40·50대 부모와 10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를 살펴보면 불교신자가 59.8%로 가장 많았고, 종교가 없는 참여자가 21.2%로 두 번째였다. 개신교는 9.8%, 가톨릭은 7.1%였으며, 유교와 기타 종교 참여자는 각각 1명에 불과했다.

〈표2〉 일반적 특성

| 구분 | 빈도(명)  | 비율(%) | 구분   | 빈도(명) | 비율(%) |       |      |
|----|--------|-------|------|-------|-------|-------|------|
| 성별 | 남자     | 75    | 40.8 | 종교    | 가톨릭   | 13    | 7.1  |
|    | 여자     | 107   | 58.2 |       | 개신교   | 18    | 9.8  |
|    | 무응답    | 2     | 1.1  |       | 불교    | 110   | 59.8 |
| 연령 | 20대 미만 | 26    | 14.1 |       | 유교    | 1     | 0.5  |
|    | 30대    | 25    | 13.6 |       | 기타    | 1     | 0.5  |
|    | 40대    | 75    | 40.8 |       | 종교 없음 | 39    | 21.2 |
|    | 50대    | 38    | 20.7 |       | 무응답   | 2     | 1.1  |
|    | 60대 이상 | 18    | 9.8  | 합계    | 184   | 100.0 |      |
|    | 무응답    | 2     | 1.1  |       |       |       |      |
| 합계 | 184    | 100.0 |      |       |       |       |      |



(2) 산사음악회 참여자의 그룹 구분

분석을 위해 응답자를 불심의 정도와 문화적 취향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불교신자<sup>11)</sup>를 범회참석 정도를 기준으로 불심의 정도를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범회참석정도가 월 1회 이상이면 불심이 높은 그룹, 월 1회 미만은 불심이 낮은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표3〉 불심의 정도에 따른 불교신자 구분

| 항목     | 빈도(명)    | 비율 (%) |      |
|--------|----------|--------|------|
| 불교신자   | 불심 낮은 그룹 | 71     | 38.6 |
|        | 불심 높은 그룹 | 48     | 26.1 |
| 해당사항없음 | 65       | 35.3   |      |
| 합계     | 184      | 100.0  |      |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불교신자를 대상으로 문화적 취향이 산사음악회와 친화적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위해 음악회에서 운영하는 10개의 프로그램<sup>12)</sup>에 대한 선호도를 대상으로 요인분석<sup>13)</sup>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음악회 참여자의

문화적 취향은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대중가요의 가수 공연을 선호하는 유형(발라드, 통기타, 락·댄스 음악), 둘째 국내의 전통음악을 선호하는 유형(국악, 클래식 및 협주단, 합창단 공연), 셋째 아마추어 공연을 선호하는 유형(주민/청소년/스님들의 공연과 트로트). 10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재구성하여 각각의 문화적 취향의 선호도를 비교하였다. 음악회 참여자들은 국악·클래식 취향의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였다. 불교신자가 아닌 참여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들의 국악·클래식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 선호도 점수를 기준으로 국악·클래식 취향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구성된 참여자의 그룹은 〈표4〉와 같다. 불심이 높은 불교신자로 구성된 그룹 1에 해당하는 참가자수의 48명으로 전체 182명에서 26.4%를 차지하며, 불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 2는 71명으로 39.0%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인 중에서 국악·클래식 취향을 가진 경우는 그룹 3으로 국악·클래식 취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되는 일반인들은 그룹 4로 구분하였다. 그룹 3은 29명으로 15.9%, 그룹 4는 34명에 18.7%를 차지하고 있다.

11) 자신의 종교는 불교 외 다른 종교나 종교없음으로 표시하였으나, 범회에 참석한다고 응답한 일반인도 불교신자에 포함하여 분석함. 이에 따라 〈표2〉의 불교신자는 110명이지만 〈표3〉의 불교신자는 119명임.

12) ①트로트, ②발라드, ③통기타, ④락·댄스, ⑤전통음악/국악(민속)공연, ⑥클래식/합주단 공연, ⑦합창단 공연, ⑧주민참여 공연(노래/장기자랑), ⑨댄스 공연(청소년 공연), ⑩스님들의 공연

13)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방법과 베리맥스(Varimax) 회전을 실시하였고 고유값인 아이겐 값(eigen—value)이 1 이상인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요인분석된 문화적 취향들은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를 사용하여 각 요인들의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Cronbach's Alpha값이 0.6 이상일 때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각 문화적 취향 요인들의 Cronbach's Alpha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표4〉 그룹에 따른 그룹 구별

| 항목                   | 빈도(명) | 비율 (%) |
|----------------------|-------|--------|
| 그룹 1: 불심이 높은 불교신자    | 48    | 26.4   |
| 그룹 2: 불심이 낮은 불교신자    | 71    | 39.0   |
| 그룹 3: 국악·클래식 취향의 일반인 | 29    | 15.9   |
| 그룹 4: 일반인            | 34    | 18.7   |
| 합계                   | 182   | 100.0  |

주: 프로그램별 선호도에 응답하지 않은 일반인 2명이 제외된 결과임

### Ⅲ. 산사음악회의 분석

#### 1. 산사음악회의 역사와 문화적 특징

##### 1) 산사음악회의 역사적 기원<sup>14)</sup>

산사음악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신문보도에 따르면 1947년에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음악회가 개최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1959년에 조계사에서 봉축음악회가 열렸다는 기록과 해방 전에도 부처님오신날과 성도절을 전후해서 문화행사가 열렸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sup>15)</sup> 이는 오늘날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산사음악회의 맹아(萌芽)는 오래전부터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오늘날과 같은 산사음악회는 대략 90년대 중반 무렵부터 시작되었고,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산사음악회가 활성화된 이유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변화된 사회 환경이다. 많은 사람들이 매스미디어에 의해 대량으로 복제 생산되고 있는 문화상품에 식상함을 느끼고 있었고 이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문화적 갈증을 산사음악회가 제공하는 문화에서 찾았다. 둘째,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사찰은 불교적으로 보면 수행공간이자 신앙공간이지만 외부의 입장에서 보면 오염되지 않은 자연속의 전통문화공간이기도 하다. 친환경적 사회

분위기와 대안문화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산사는 새로운 모습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셋째, 사회의 문화적 변화를 선도적으로 인식한 스님들의 기획마인드이다.

이러한 산사음악회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교계신문에 보도되는 경우가 매년 80—100여 곳이 이르고 있는 점과 보도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150여개 사찰에서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 2) 산사음악회의 문화적 특징

###### (1) 일반화된 문화 프로그램

산사음악회는 매년 150여개의 사찰에서 개최할 정도로 매우 일반화된 문화포교 방법이다. 때문에 몇 년 전부터는 음악회 단독으로 개최되기보다는 타 프로그램, 특히 지역축제와 연계되어 개최되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사찰의 입장에서는 음악회가 일반화되어 있어 개최의 부담이 덜하며 축제의 구성을 보다 풍성하게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관람형 프로그램으로 참여수준이 낮아 참여에 따르는 부담이 적다. 최근에는 ‘개산대제’나 큰 법회 및 사찰 중요행사 시 병행하는 경우도 많아 산사음악회의 개최 횟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참여관객이 점점 늘어나고 반응도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2) 축제로서의 산사음악회

산사음악회의 성장은 불교의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사가

14)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2005)을 주로 참고함

15) 〈한국현대불교사 일지〉,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근현대사〉

많아지고 있는 현상과 관련된다. 기도형식의 의식 위주로 되어있던 불교행사가 최근에는 축제 성격의 행사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불교 대중화의 요구가 가시화된 현상으로 파악된다. 그 동안 보수적으로 평가되었던 불교계에서도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축제 성격의 행사들이 자발적으로 개최된다는 사실이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축제와 연계되어 다양한 불교관련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다. 화순 운주사의 ‘운주축제’, 영주 부석사의 ‘화엄축제’, 양평 사나사 ‘태고보우국사 추대의식 재현’, 군위 인각사 ‘삼국유사 축제’, 대흥사의 ‘초의차문화제’, 향일암의 ‘일출제’, 전동사의 ‘삼량성역시문화 축제’, 월정사의 ‘천년의 숲길 걷기대회’, 청량사 ‘산사음악회’ 등은 지역 사찰이 중심이 되어 불교적 소재를 기반으로 한 지역축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 (3) 불교음악의 대중화 시도로서 산사음악회

산사음악회는 불교음악의 대중화를 바라는 일반대중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산사음악회에 참여하는 다양한 음악가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불교음악은 불교의식을 위한 음악으로 존재·발전하였지만 이제는 불교음악도 즐기는 문화의 범주로 향유하려는 일반대중의 요구가 발생하였다. 현재 산사음악회에는 대중가수를 비롯하여 성악가, 지역 음악인, 불교음악가 등 다양한 음악가들이 참여하고

16)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2006), pp. 19-20

있다.<sup>17)</sup>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음악가들이 참여한 음악회가 사찰에서 개최될 수 있는 이유는 불교음악의 대중화를 바라는 일반대중의 요구뿐 아니라 그러한 대중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려는 불교계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활발하기 때문이다.<sup>18)</sup> 불교음악의 대중화라는 이 시대의 문화현상을 반영한 포교 활동이 산사음악회이다.

## 2. 산사음악회 참가자의 태도와 인식

### 1) 관람동기

산사음악회 관람동기에는 그룹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룹 1은 우리 질 행사이기 때문에(29.2%), 불교를 더 잘 알고 싶어서(25.0%) 산사음악회에 참석하였다. 반면에 불심이 그룹 1보다는 낮은 그룹 2와 국악·클래식 취향의 일반인들로 구성된 그룹 3과 그렇지 않은 그룹 4의 경우는 음악회를 즐기기 위해서 산사음악회를 관람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7) 2000년 5월 작곡가 겸 가수 노영심은 길상사에서 ‘이야기 피아노’ 연주회를 개최하였고, 2001년 미황사에서 개최된 산사음악회에는 승무와 법고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005년 오대산 불교문화축제의 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산사음악회에서는 범패와 영산재, 합창, 찬불가, 통기타, 하모니카 연주 등이 있었다.

18) 이러한 불교계의 변화의 원인으로는 불교음악의 가치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 전환, 불교의식의 성격의 변화, 승속 간의 신분 인식의 변화, 마지막 불교를 보는 시각의 변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옥영(2002)을 참조할 것

〈표5〉 그룹별 관람동기

|                | 그룹 1       | 그룹 2       | 그룹 3       | 그룹 4       | 전체          |
|----------------|------------|------------|------------|------------|-------------|
| 여가생활을 즐기기 해서   | 12.5 (6)   | 14.3 (10)  | 25.0 (7)   | 35.3 (12)  | 19.4 (35)   |
| 음악회를 즐기기 위해서   | 18.8 (9)   | 42.9 (30)  | 53.6 (15)  | 41.2 (14)  | 37.8 (68)   |
| 불교를 더 잘 알고 싶어서 | 25.0 (12)  | 14.3 (10)  | 10.7 (3)   | 5.9 (2)    | 15.0 (27)   |
| 도반과 친해지기 위해서   | 12.5 (6)   | 4.3 (3)    | 0.0 (0)    | 0.0 (0)    | 5.0 (9)     |
|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여   | 0.0 (0)    | 4.3 (3)    | 0.0 (0)    | 8.8 (3)    | 3.3 (6)     |
| 우리 절 행사이기때문에   | 29.2 (14)  | 15.7 (11)  | 0.0 (0)    | 0.0 (0)    | 13.9 (25)   |
| 기타             | 2.1 (1)    | 4.3 (3)    | 10.7 (3)   | 8.8 (3)    | 5.6 (10)    |
| 소계             | 100.0 (48) | 100.0 (70) | 100.0 (28) | 100.0 (34) | 100.0 (180) |

(단위: % 응답자수)

## 2) 정보 습득경로

산사음악회 관련 정보를 습득한 경로도 그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그룹 1에서는 스님이나 사찰의 소개(33.3%)로 정보를 습득한 경우와 불교계 언론(31.3%)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접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그룹 2는 현수막(24.3%)과 불교계 언론(22.9%)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 사례가 많았다. 그룹 3에 속한 참가자들의 44.8%는 주위 사람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었다. 그룹 4의 경우도 주위사람을 통해 정보를 얻은 비율이 38.2%로 가장 많았으나 현수막(35.3%)과 인터넷(20.6%)을 통해 정보를 얻은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 3) 산사음악회 동행인

산사음악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동료들과 동행하였다. 그룹 1의 39.6%, 그룹 2는 53.5%, 그룹 3은 58.6%, 그룹 4는

67.6%가 가족과 산사음악회에 동행하였다. 그룹 1의 경우는 같은 사찰 신도와 동행하는 비율도 31.3%나 되었다.

〈표6〉 그룹별 정보 습득 경로

|               | 그룹 1       | 그룹 2       | 그룹 3       | 그룹 4       | 전체          |
|---------------|------------|------------|------------|------------|-------------|
| 불교계 언론(신문/잡지) | 31.3 (15)  | 22.9 (16)  | 17.2 (5)   | 0.0 (0)    | 19.9 (36)   |
| 불교방송(라디오)     | 2.1 (1)    | 2.9 (2)    | 0.0 (0)    | 0.0 (0)    | 1.7 (3)     |
| 불교TV          | 2.1 (1)    | 4.3 (3)    | 6.9 (2)    | 0.0 (0)    | 3.3 (6)     |
| 현수막           | 6.3 (3)    | 24.3 (17)  | 6.9 (2)    | 35.3 (12)  | 18.8 (34)   |
| 주위사람 소개       | 8.3 (4)    | 8.6 (6)    | 44.8 (13)  | 38.2 (13)  | 19.9 (36)   |
| 인터넷           | 12.5 (6)   | 8.6 (6)    | 10.3 (3)   | 20.6 (7)   | 12.2 (22)   |
| 스님/사찰의 소개     | 33.3 (16)  | 20.0 (14)  | 6.9 (2)    | 0.0 (0)    | 17.7 (32)   |
| 기타            | 4.2 (2)    | 8.6 (6)    | 6.9 (2)    | 5.9 (2)    | 6.6 (12)    |
| 소계            | 100.0 (48) | 100.0 (70) | 100.0 (29) | 100.0 (34) | 100.0 (181) |

(단위: % 응답자수)

〈표7〉 그룹별 동행인

|          | 그룹 1       | 그룹 2       | 그룹 3       | 그룹 4       | 전체          |
|----------|------------|------------|------------|------------|-------------|
| 가족       | 39.6 (19)  | 53.5 (38)  | 58.6 (17)  | 67.6 (23)  | 53.3 (97)   |
| 친구/동료    | 20.8 (10)  | 33.8 (24)  | 27.6 (8)   | 26.5 (9)   | 28.0 (51)   |
| 이웃       | 2.1 (1)    | 9.9 (7)    | 13.8 (4)   | 0.0 (0)    | 6.6 (12)    |
| 같은 사찰 신도 | 31.3 (15)  | 1.4 (1)    | 0.0 (0)    | 0.0 (0)    | 8.8 (16)    |
| 혼자서      | 2.1 (1)    | 1.4 (1)    | 0.0 (0)    | 5.9 (2)    | 2.2 (4)     |
| 무응답      | 4.2 (2)    | 0.0 (0)    | 0.0 (0)    | 0.0 (0)    | 1.1 (2)     |
| 소계       | 100.0 (48) | 100.0 (71) | 100.0 (29) | 100.0 (34) | 100.0 (182) |

(단위: % 응답자수)

#### 4) 관람회수와 흥미정도

산사음악회 평균 관람회수는 그룹에 따라 그 차이가 명확하였다. 그룹 1은 평균 3.31회 산사음악회를 관람한 경험이 있어, 그룹 3(1.52회)과 그룹 4(1.38회)보다 관람경험이 2배 이상 많다. 그리고 전체 참가자들의 평균 관람회수는 2.15회로 대부분 반복 관람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산사음악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사음악회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흥미정도가 매우 높다는 결과에서도 확인 된다. 그룹 4를 제외한 모든 그룹의 흥미점수가 높게 조사되었다(그룹1: 3.77, 그룹 2: 3.72). 특히 국악·클래식을 선호하는 참가자들로 구성된 그룹 3의 경우는 흥미점수가 4.14로 가장 높다.

#### 5) 산사음악회 권유의향/오락 제공/발전가능성

분석결과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주위사람들에게 산사음악회를 권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참가자들이 산사음악회가 다양한 볼거리와 오락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축제로의 발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룹 1의 경우는 권유의사가 있는 비율이 94%에 이른다. 그 비율이 가장 낮은 그룹 4의 경우도 67.6%이다. 산사음악회가 다양한 볼거리와 오락거리를 제공한다는 응답도 그룹 4의 경우는 44.1%로 절

반을 넘지 못하지만, 나머지 그룹들에서는 응답비율이 80%를 넘는다. 국악·클래식을 선호하는 일반인들을 의미하는 그룹 3의 경우는 89.7%로 그 비율이 가장 높다. 또한 90%가 넘는 응답자들이 산사음악회가 지역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8〉 그룹별 산사음악회 관람회수와 흥미정도

| 그룹   | 평균 관람회수 | 평균 흥미점수 |
|------|---------|---------|
| 그룹 1 | 3.31    | 3.77    |
| 그룹 2 | 2.00    | 3.72    |
| 그룹 3 | 1.52    | 4.14    |
| 그룹 4 | 1.38    | 3.15    |
| 전체   | 2.15    | 3.70    |

주: 흥미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한 후 계산하였음.

〈표9〉 그룹별 권유의향/오락 제공/발전가능성

|                    |     | 그룹 1       | 그룹 2       | 그룹 3       | 그룹 4       | 전체          |
|--------------------|-----|------------|------------|------------|------------|-------------|
| 권유 의향              | 없다  | 0.0 (0)    | 2.8 (2)    | 0.0 (0)    | 2.9 (1)    | 1.6 (3)     |
|                    | 보통  | 6.3 (3)    | 8.5 (6)    | 17.2 (5)   | 29.4 (10)  | 13.2 (24)   |
|                    | 있다  | 93.8 (45)  | 88.7 (63)  | 82.8 (24)  | 67.6 (23)  | 85.2 (155)  |
| 다양한 볼거리<br>오락거리 제공 | 아니다 | 0.0 (0)    | 4.2 (3)    | 0.0 (0)    | 2.9 (1)    | 2.2 (4)     |
|                    | 보통  | 14.6 (7)   | 14.1 (10)  | 10.3 (3)   | 52.9 (18)  | 20.9 (38)   |
|                    | 그렇다 | 85.4 (41)  | 81.7 (58)  | 89.7 (26)  | 44.1 (15)  | 76.9 (140)  |
| 지역 축제<br>발전 가능성    | 아니다 | 0.0 (0)    | 1.4 (1)    | 0.0 (0)    | 2.9 (1)    | 0.5 (1)     |
|                    | 보통  | 2.1 (1)    | 5.6 (4)    | 6.9 (2)    | 17.6 (6)   | 7.1 (13)    |
|                    | 그렇다 | 97.9 (47)  | 93.0 (66)  | 93.1 (27)  | 79.4 (27)  | 91.8 (167)  |
| 소계                 |     | 100.0 (48) | 100.0 (71) | 100.0 (29) | 100.0 (34) | 100.0 (182) |

(단위: % 응답자수)

## IV. 산사음악회의 포교효과

### 1. 포교효과별 비교

산사음악회의 포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에 포교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13개의 문항을 제시하였고, 이를 종교적·문화적·정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10〉 포교효과의 구성과 효과점수

| 차원                   | 효과 항목                          | 효과점수 |
|----------------------|--------------------------------|------|
| 종교적 측면<br>(전체: 3.67) | ·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 3.74 |
|                      | ·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3.34 |
|                      | · 일반인들에게 불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   | 3.95 |
|                      | ·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강화한다              | 3.78 |
|                      | ·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 3.50 |
| 문화적 측면<br>(전체: 4.03) | · 문화행사를 즐기는 놀이의 장이다            | 3.80 |
|                      | ·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수준을 향상시킨다        | 4.07 |
|                      | · 관광객(관람객) 유치에 효과가 있다          | 3.97 |
|                      | · 불교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한다            | 4.01 |
|                      | · 사찰을 지역에 알리는 홍보효과가 있다         | 4.31 |
| 정서적 측면<br>(전체: 3.71) | · 불자들과 일반인들의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   | 3.83 |
|                      | · 스님과 신도들이 가까워지는(친해지는) 계기가 된다  | 3.65 |
|                      | · 신도들 간에 유대감과 친밀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된다 | 3.66 |

주: 효과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한 후, 계산하였음.

분석결과에 의하면 산사음악회는 세 측면에서 모두 포교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문화적 측면의 효과점수가 가장 높았다. 개별항목 중에서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수준 향상, 불교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 그리고 사찰을 지역에 알리는 홍보효과의 효과점수도 4점을 넘었고, 나머지 2항목의 점수도 3.8—3.9점 사이로 높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정서적 측면(3.71)과 종교적 측면(3.67)에서도 산사음악회는 보통 이상의 효과를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정서적 측면에서 불자와 일반인의 유대 강화의 효과점수는 3.83로 비교적 높았으나 스님과 신도(3.65)사이나 신도들 사이(3.66)의 유대감과 친밀성을 강화하는 효과점수는 이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산사음악회가 일반대중에게는 불교와 불교신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불교신자들에게도 일반인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음악회라는 성격상 불교적 색채가 약하기 때문에 불교신도들 사이 혹은 스님과의 유대를 강화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사음악회의 종교적 측면의 효과와도 연관된다. 산사음악회가 불교문화를 이해(3.74)하거나 일반인의 불교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3.95)하는 효과는 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계기를 제공(3.34) 하는 데에는 큰 도움은 주지 못했다는 분석결과와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강화하는(3.78) 효과는 있지만 정체성을 강화(3.50)하는 효과는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은 산사음악회가 문화적 측면에서 높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에도 이를 종교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서의 효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산사음악회는 참가자들에게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불교문화의 발전에 기여하지만, 참가자들이 이를 계기로 불교적 가치를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는 적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2. 그룹별 효과 비교

### 1) 종교적 측면의 효과

종교적 측면의 효과는 산사음악회를 통해 불교적 가치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경우나 불자로서의 자부심이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종교적 효과를 산사음악회를 통해 경험했으며 참가자들이 부여한 전체 평균 점수는 그룹 1이 4.01로 가장 높다. 그 다음은 그룹 2(3.70) > 그룹 3(3.47) > 그룹 4(3.26)의 순이었다. 산사음악회를 통해 일반인이 불교적 가치를 수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항목의 점수가 그룹 3은 3.10, 그룹 4는 2.73으로 매우 낮았다. 산사음악회가 불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그룹 3: 3.93, 그룹 4: 3.56)주거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그룹 3: 3.76, 그룹 4: 3.59)<sup>19)</sup>가 되더라도 이러한 경험이 불교적 가르침에 대한 수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 2) 문화적 측면의 효과

연구초기에 산사음악회의 문화적 효과는 국악·클래식을 선호하는 일반인들로 구성된 그룹 3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라 기대

하였지만 그룹 3의 문화적 측면의 효과점수는 기대와 달리 가장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효과점수는 4.12로 매우 높으며 문화적 측면을 구성하는 5개의 세부항목의 효과점수도 모두 4점을 넘고 있다. 다른 측면의 효과에 비해 산사음악회가 문화적 측면에서 그룹 3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불심이 강한 그룹 1의 경우는 문화적 효과점수도 가장 높아 프로그램의 유형과 상관없이 포교행위 그 자체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고 유추할 수 있다.

〈표11〉 그룹별 종교적 측면의 효과 비교

| 세부항목                  | 그룹 1 | 그룹 2 | 그룹 3 | 그룹 4 | F      | Sig.     |
|-----------------------|------|------|------|------|--------|----------|
|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계기 제공      | 3.94 | 3.66 | 3.76 | 3.59 | 2.035  | 0.111    |
|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 | 3.85 | 3.37 | 3.10 | 2.73 | 11.984 | 0.000*** |
| 일반인들에게 불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  | 4.17 | 4.00 | 3.93 | 3.56 | 5.341  | 0.002**  |
|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강화         | 4.29 | 3.85 | 3.31 | 3.30 | 12.302 | 0.000*** |
|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         | 3.81 | 3.62 | 3.24 | 3.00 | 8.242  | 0.000*** |
| 전체 종교적 측면의 효과         | 4.01 | 3.70 | 3.47 | 3.26 | 12.609 | 0.000*** |

주: \* p<0.05, \*\* p<0.01, \*\*\* p<0.001

〈표12〉 그룹별 문화적 효과 비교

| 세부항목              | 그룹 1 | 그룹 2 | 그룹 3 | 그룹 4 | F      | Sig.     |
|-------------------|------|------|------|------|--------|----------|
| 문화행사를 즐기는 놀이의 장   | 4.02 | 3.69 | 4.00 | 3.53 | 4.203  | 0.007**  |
|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수준 향상 | 4.27 | 4.10 | 4.07 | 3.71 | 4.662  | 0.004**  |
| 관광객(관람객) 유치 효과    | 4.19 | 3.97 | 4.07 | 3.59 | 5.345  | 0.002**  |
| 불교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   | 4.23 | 3.97 | 4.00 | 3.76 | 2.629  | 0.052    |
| 시찰을 지역에 알리는 효과    | 4.56 | 4.37 | 4.48 | 3.68 | 18.532 | 0.000*** |
| 전체 문화적 효과         | 4.25 | 4.02 | 4.12 | 3.65 | 10.135 | 0.000*** |

주: \* p<0.05, \*\* p<0.01, \*\*\* p<0.001

19)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의 그룹별 효과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이를 제외한 모든 세부 항목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3) 정서적 측면의 효과

산사음악회는 정서적 측면에서도 그룹 1(3.96)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이 그룹 2(3.81) > 그룹 3(3.69) > 그룹 4(3.17)의 순이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각 그룹에 미치는 정서적 효과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악·클래식을 선호하는 일반인들로 구성된 그룹 3의 경우는 불자와 일반인들의 유대를 강화하는 효과(3.86)는 높았지만, 스님과 신도(3.52) 및 신도들간의 유대를 강화(3.69)하는 효과는 이보다 낮았다. 불교신자로 구성된 그룹 1과 그룹 2의 경우는 세 항목의 점수가 모두가 높았고, 반대로 그룹 4의 경우는 3가지 세부항목의 효과점수가 모두 낮았다.

〈표13〉 그룹별 정서적 효과 비교

| 세부항목            | 그룹 1 | 그룹 2 | 그룹 3 | 그룹 4 | F      | Sig.     |
|-----------------|------|------|------|------|--------|----------|
| 불자와 일반인들의 유대 강화 | 4.04 | 3.93 | 3.86 | 3.27 | 11.301 | 0.000*** |
| 스님과 신도들의 유대 강화  | 3.85 | 3.82 | 3.52 | 3.12 | 6.354  | 0.000*** |
| 신도들간의 유대감       | 3.98 | 3.68 | 3.69 | 3.12 | 7.494  | 0.000*** |
| 전체 정서적 효과       | 3.96 | 3.81 | 3.69 | 3.17 | 10.981 | 0.000*** |

주: \* p<0.05, \*\* p<0.01, \*\*\* p<0.001

### 3. 소결

4장에서는 산사음악회의 포교효과를 종교적/문화적/정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그룹별 효과정도의 차이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의 2장에서 제기한 연구가설의 검증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첫번째 ‘산사음악회는 문화적 측면의 효과가 가장 클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은 검증 결과 올바른 가설로 입증되었다. 산사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음악회라는 특성상 현대인의 문화적 욕구에 상응하는 위안과 편안함을 산사음악회가 제공하기 때문이라 풀이된다. 더불어 문화포교의 유형에 따라 포교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간접적으로 입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두 번째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포교효과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포교효과의 종류와 수용자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종교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의 효과는 그룹 1에서 가장 클 것이라 가정하였는데, 실제 분석결과도 이와 일치하였다. 반면에 문화적 측면의 효과는 그룹 3에서 가장 클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제시하였지만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룹1이 4.25로 그룹3(4.12)보다 4.12보다 크다. 이러한 결과는 참가자의 불심이 깊을 경우에는 문화적 취향이 산사음악회와 상이하더라도 음악회의 참여를 통해 문화적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대로 불심이 낮을 경우에는 문화적 취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측면의 효과는 그룹 3이 그룹 4보다 클 것이다’라는 연구가설은 검증결과 그룹 3은 3.47, 그룹 4는 3.26으로 지지되고 있다. 이는 대표적인 문화포교인 산사음악회의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로서 문화포교의 프로그램의 포교효과는 참여자의 문화적 취향과 비슷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산사음악회의 포교효과성을 분석함으로써 불교문화의 대중화 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 하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문화포교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문화포교의 개념과 유형을 새롭게 정리하였다. 이전에는 문화포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참가자의 특성에 따라 포교효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포교가 불교라는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임을 고려할 때 문화포교 프로그램은 그 구성에 따라 참가자에게 상이한 영향을 주고, 참가자의 특성도 불교수용과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포교를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참가자의 유형도 불심의 정도와 문화적 취향을 기준으로 4개 집단으로 유형화하였다. 그 후 산사음악회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가자의 특성에 따라 포교효과성에 어떠한 차이가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산사음악회는 대표적인 “관람형-단독형 프로그램”으로서 참가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부담이 적은 프로그램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산사음악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친화적인 문화적 취향을 가진 일반인들은 주위 사람들의 소개를 통해 음악회를 즐기기 위해 가족과 함께 관람할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산사음악회에 참석하여 불교문화를 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사음악회는 인기뿐 아니라 포교효과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가자의 불심이 깊을수록 문화적 취향이 산사음악회와 비슷할수록 포교효과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문화적 측면의 포교

효과성이 높았는데 이는 일반대중에게 인식처로서 기능하는 산사를 배경으로 불교적 색채가 약한 음악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문화적 측면에서 불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불교적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다만 산사음악회에서 제공하는 불교적 가르침과 삶의 양식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인지 높은 문화적 효과를 얻고 있는 일반인들의 경우도 종교적 효과가 낮다는 점은 산사음악회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다 높은 종교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종교적 색채를 강화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불교문화의 포교 효과성에 만족하고 현재와 같은 음악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산사음악회의 프로그램을 보다 세부화하여 문화적 취향별로 특성화하여 제공하는 방법과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종교적 효과를 강화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 대한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프로그램의 구성에 이에 맞추어 포교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악·클래식 취향의 일반인은 동호회 등 같은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통해 산사음악회 관련 정보를 얻는 가능성이 크므로 동호회 등과 접촉을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관람-단독형 프로그램인 산사음악회의 포교 효과성만을 검토하였다. 2장에서 제시한 가설 즉, 문화포교 유형별로 참가자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포교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후 다른 유형의 문화포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현재 개별 문화포교 프로그램들의 효과분석에만 머무르고 있는 기존 연

구들의 한계를 넘어 보다 종합적으로 문화포교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불교적 가치를 수용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후가 아닌 일정 시간이 경과 후에 설문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이는 설문조사에 수반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따른 선택이었다. 또한 참여직후라 하더라도 결과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 참고문헌

- 강진구, 「한민족리포트와 문화선교」, 《활천》 601호(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2003)
- 권병기, 「총체적 문화 공연 사역을 통한 효과적인 선교 전략 연구」,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 김문환, 『문화선교와 교회갱신』, (서울: 엠마오, 1995)
- 김승태, 『문화선교 사역에로의 초대』,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4)
- 김유신, 「문화를 통한 사찰 활성화 방안」, 『전국 본·말사 주지연수 자료집』,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4)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불교문화기획의 이해』,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5)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불교문화환경 조사 보고서』,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6)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불교와 사회』,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2005)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포교 이해론』,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2007)
- 박성철, 「경전에 나타난 불교적 음악관」, 『2002년 제2차 한국불교학 결집대회 자료집』, (2002)
- 유옥영, 「불교음악의 대중화를 위한 방법론적 고찰」, 『2002년 제2차 한국불교학 결집대회 자료집』, (2002)
- 유승무 · 박수호 · 정병웅, 「방한외국인의 사찰체험관광 행동분석: FIFA

2002 한일월드컵 템플스테이 참여만족도를 중심으로, 『한·일 공동주최 2002년 국제관광학술대회』, (2002)

- 정해성, 「연등축제의 문화포교 효과성 분석」, 중앙승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사)한국종교문화연구소, 『해외선교·포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04)
- 한우옥, 「자원봉사활동의 포교 효과성 연구」, 중앙승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한완상·한 균자, 『인간과 사회』,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0)
- 히라노 겐이치로, 장인성·김동명 역, 『국제문화론』, (서울: 풀빛, 2004)
- Arnold Joseph Toynbee, 일조각 번역위원회 역, 『21세기와 대화 '종교의 역할'』, (서울: 일조각, 1986)

## The missionary effects of Temple concert as a sort of cultural mission

Jung, Hae-sung(Kag-jung)  
Joongang Sanga University

These days, interest in the quality of life and in cultural events have grown. For the purpose of mission, more and more temples use cultural measures. Cultural mission could be defined as missionary works using cultural measures. In cultural missions, music concerts at temples have played important roles since 1990. But, music concerts at temples have been rarely studied.

This study describes concepts and types of cultural missions, the origin of temple concer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udiences. And then, their attitudes toward the temple concerts are examined. For these, cultural missions are categorized by the participation levels of the audiences and whether they are linked to other missionary programs. Also, audiences are classified by their religions and cultural preferences. Through comparisons of this typology, the

missionary effects a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vides several suggestions relating to temple concerts.

Temple concerts have positive influences not only for existing Buddhists but also for non-Buddhists, especially those who are interested in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classic music. For existing Buddhists, temple concerts provide a strengthened Buddhist identity and religious pride. For non-Buddhists, temple concerts provid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Buddhist culture and help the non-Buddhists to have a positive attitude toward Buddhism.

**Key Word**\_\_\_\_\_

cultural mission, temple concert, missionary effect, cultural preference



## 불교학연구회 활동일지

2009년 1~4월

### 1. 겨울워크숍

일 시 2월 14일~15일

장소 및 후원 마곡사(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

주 제 명상, 이 뭣고?-간화선과 위빠사나, 위빠사나와 간화선

#### 1) 간화선 발표

제1발표 미산스님(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상도선원장)

나의 출가수행과 이 뭣고? 화두

제2발표 월암스님(벽송선원장)

간화선의 이론적 토대와 화두 실참

제3발표 무각스님(공생선원장)

한암선사의 불교사상과 실천행

제4발표 박영재(서강대 교수, 선도회 지도법사)

간화선, 누구를 위한 수행법인가?